

10 오피니언

사설

공간, 독점 넘어 공유로

공유의 시대다. 과거와 같이 재화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공유하는 ‘공유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 비단 재화만이 아니다. ‘교육’도 공유의 대상이 된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각 대학이 가진 물적·인적 역량을 공유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가장 뜨거운 화두는 ‘공간 공유’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표준이 되는 등 업무에서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 공용 오피스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지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학교도 기숙사였던 삼의원을 창업 활동을 위한 공용 오피스로 조성해 구성원들에게 개방했다. 공간의 독점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지만, 교육 공간과 학생 자치 공간은 여전히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경대학 등 다수의 단과대학은 여전히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 학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이들 단과대학은 벌써부터 강의실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도 다르지 않다.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가 병행될 경우 교내에서 비대면 강의를 수강할 공간이 부족해 이른바 ‘카공(카페에서의 공부)’에 의존해야 할 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양 캠퍼스의 교사시설확보율은 115%가 넘는다. 충분치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수치다. 2018년에는 SPACE21 타워가 완공돼 교육 공간이 확충되기도 했다. 연구·실습 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대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간 문제

의 원인을 물리적인 절대 공간의 부족에만 돌릴 수는 없다.

문제는 배타적인 공간의 독점이다. 단과대학 별로 보유 공간의 편차가 크지만,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공간 공유의 시스템도 부족하거나 단과대학 내 공간이 각 단과대학만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인식도 원인 중 하나다. 그렇다 보니 캠퍼스에 공간 ‘부족’과 ‘과잉’이 공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학생 자치 공간도 마찬가지다. 일부 동아리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대다수 공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공간의 비효율성은 교육 환경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연하지만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학교는 대면 수업 확대에 맞춰 학생들이 회의와 강의 수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건물에 공용 공간을 확충했다. 이 같은 노력은 학교가 학생들의 고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는 데서 바람직한 대목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단과대학의 경계를 허물어 더 많은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융복합으로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금, 공간의 배타성을 넘어 물리적 경계도 허물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간의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 효율화의 시작은 공간의 ‘독점’을 극복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캠퍼스의 공간은 구성원을 위한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분절된 캠퍼스로 대학이 교육의 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세시봉

주치의 마수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중추신경을 진정시키는 일종의 ‘독’인 술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편안함을 주며 도파민을 유도해 쾌락을 주기도 한다. 모든 문화권에서 술이 ‘즐거움’, ‘힐링’의 이미지인 이유다. 그러나 독이라는 술의 특성처럼 과도한 음주는 신경계의 통제기능을 억제해 판단력을 손상시킨다.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매년 7만 명이 넘는다. 알코올 질한 사망자 수만 연평균 5천여 명에 달한다. 술로 인해 개인도, 가정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술이라는 독의 마수(魔手)는 개인을 넘어 사회에도 뻗치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의 음주운전은 이번만이 아니다. 음주 사고 이후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로 복귀하는 행보는 이미 관례로 굳어진 지 오래다.

연예인만의 문제일까. SB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의 10%가 넘는 1,113명이 음주운전 관련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두 주요 정당 모두 음주운전 등 주요 전과가 있는 후보를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음주운전 가중 처벌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와 희생은 여전히 ‘실수’의 결과로 치부된다.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로 공무원, 연예인, 정치인 심지어 유력 대권후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연하다. 특히 국민을 대표해 정사를 논하는 정치인에게 음주운전은 결격사유조차 되지 못한다.

언제까지 취기(醉氣)가 치기 어린 변명으로 쓰일 것인가. 더 이상 술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희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이라는 술의 마수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희생의 방향은 자신을 향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흐려진 사회적 판단력을 이제는 바로잡을 때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이 시대의 문학

문학과 대중의 공존법

유경민 기자

gmni0313@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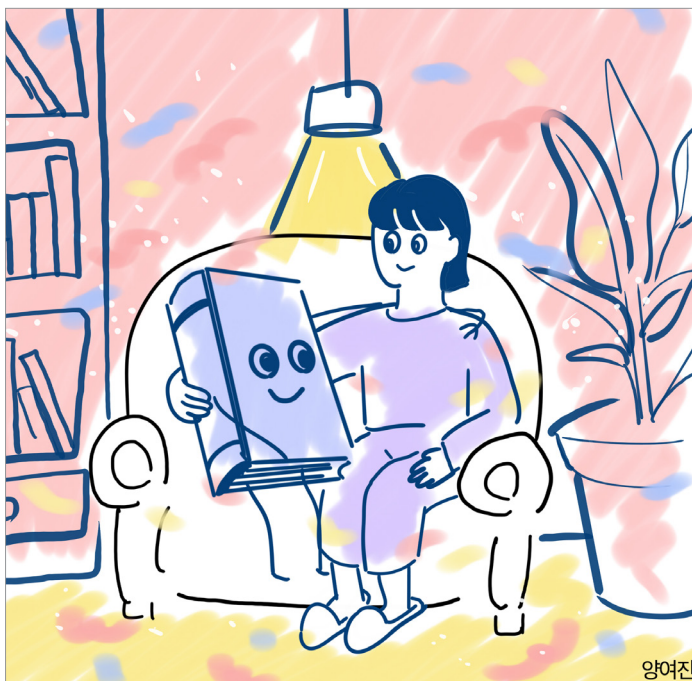
바야흐로 정확과 효율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한 다양한 매체는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고 있다. 소통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소통은 오히려 부족해졌다. 자신이 하는 말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다는 불안은 현대사회가 가진 시대적 증상으로 보인다.

매체의 홍수 속에서 행간, 여백, 띄어쓰기의 공간을 차분히 마주해야 하는 문학은 이제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과 다시 함께해야 한다. 문학은 일방적인 소통 수단이 아니다. 문학은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들에 이름을 찾아 불러주며 일상의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학의 목소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 활자가

주는 공간을 이해하려 시도하며 삶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마다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작품에 배열하는 젊은 문학가들에게 이 시대가 가진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물었다. 우리신문이 만나본 경희의 젊은 문학가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실상에 우려하고 있었다. 꾸준히 소통하고 자잘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문학 역시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소외된 문제, 소외된 대중을 포용하는데 앞장섰던 문학은 이제 희미해졌다. 문학은 ‘읽기 쉽다’는 이유로 배제하곤 한다. ‘어려움’과 ‘그럴듯함’이 좋은 문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학을 위한 문학이 아닌 대중을 어루만지고 시대의 실상을 고발하던 과거의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 바야흐로 대중과 문학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 시대의 공존법을 찾을 때이다.



만평 문학과 대중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경민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